

광주 '도로조명 통합관제' 세종시도 탐냈다

시, 독자개발시스템... 태양광 따라 자동 점·소등

나주혁신도시 이어 두번째로 연내 세종시에 구축

광주시가 독자 개발해 운영중인 '도로조명 통합관제시스템'이 나주 혁신도시에 이어 세종시에도 구축된다.

광주시는 자체 개발해 태양광에 따라 자동 점·소등 운영이 가능한 도로조명 통합관제시스템이 정부종합청사가 있는 세종시에도 구축한다고 26일 밝혔다.

광주시는 최근 세종시와 도로조명 통합관제시스템 통신프로토콜에 대한 공급 및 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전산장비 등 기반시설을 오는 7월부

터 12월까지 설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개발비의 10%인 900만원의 세외수입도 함께 올리게 됐다.

도로조명 관제센터 통신프로토콜은 자치구별로 관제장치가 개별 운영되면서 제품 간 호환은 물론 점·소등 시간이 일정하지 않는 등 유지 관리비가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9년 광주시가 독자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광주지역 주요 도로변의 가로등과 보안등을 지리정보시스템(GIS)

과 연계해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고장이 발생할 경우 즉시 회로를 차단해 무부하 전력손실을 방지하고 신속히 보수해 도로 교통여건 개선과 시민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전기요금 절약 등을 이유로 실시되는 일부 구간 소등이나 격등제가 자치구마다 달라 운전자들이 겪었던 불편이 해소됐고, 통신제품 구매비도 절약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광주시는 2009년 6월 전국 최초로 한국 컴퓨터 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 도로조명 관제센터 통신프로토콜을 광주시 지적재산권으로 등록하고, 첨단 기술행정의 실현 성과를 인정받아 2012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돼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았다.

이로 인해 2012년부터 나주혁신도시에 '도로조명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세종시는 총남 연기군과 공주시 일원 72.9km에 2005년부터 2030년까지 20만 가구(50만명)를 건설하고 있으며, 협약 체결에 앞서 지난 5월16일 광주시를 방문하고 '도로조명 통합관제시스템'의 우수성을 확인했다.

광주시 문평섭 도로과장은 "광주시가 개발한 '도로조명 통합관제시스템'이 운영과 효과의 우수성으로 인해 타 자치단체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면서 "시에 적합한 첨단기술행정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동구, 꽃밭조성으로 쓰레기 투기 방지

금남공원 주변 골목길 등

광주시 동구의 상습 불법투기 지역이 썩지꽃밭으로 새단장됐다.

26일 광주시 동구 총장동주민센터에 따르면 총장동새마을부녀회와 통장들은 이날 중순께 동구 금남공원 주변 옛 신동아극장 골목길 등 상습 투기구역 2~3곳을 선정해 썩지꽃밭으로 조성했다.

이 골목길 등은 애초 행인들이 오가며 담배꽂이를 버리거나 물레 버린 쓰레기로 몸살을 앓았던 곳이다. 지역민들은

변갈아가면서 꽃밭에 물을 주는 등 스스로 관리하기로 했다.

동 주민센터는 이번 금남공원 주변 썩지꽃밭 조성사업을 본보기 삼은 뒤, 다른 통에서도 썩지꽃밭을 조성해 도심환경 조성은 물론 불법 쓰레기 투기도 없앤다는 계획이다.

광주 동구 관계자는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의 특성상 이곳을 오가는 많은 행인들이 내 집 앞, 우리 동네라는 마음가짐으로 쓰레기 등을 함부로 버리지 않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golee@



광주 북구 냉방병 예방 활동

시설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 중이다.

광주 북구보건소 질병관리팀 직원들이 최근 북구청 별관 건물 옥상 냉각탑에서 여름철 냉방기 사용으로 감염될 수 있는 급성호흡기질 환인 레지오넬라증(냉방병) 예방을 위해 냉각탑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북구는 이달 말까지 백화점과 병의원 등 24개소의 다중이용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UN 고문 생존자 지원의 날' 기념식

광주트라우마센터 만남 행사

광주시는 유엔이 정한 '고문생존자 지원의 날'을 맞아 광주트라우마센터 주관으로 26일 오후 2시 광주문화재단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에서 기념식을 개최한다.

기념식은 근로정신대 생존자, 민간인 학살 유가족,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국내 고문·국가폭력 생존자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는 자리와 센터 음악치유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악기 연주, 노래 공연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2014년 고문생존자 지원의 날 국제적 캠페인은 '불처벌 반대'를 주제로, 고문생존자와 가족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는 전 지구적 캠페인이 세계 각지에서 열린다. 센터는 이날 행사 내용을 국제고문피해자재활센터(IRCT)에 보내 고문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전 세계 인들과 공유할 방침이다.

유엔은 지난 1997년 12월 총회에서 고문방지협약이 발효된 6월26일을 '고문생존자 지원의 날'로 선포하고, 이듬해인 1998년 6월 26일 첫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시 '미혼한부모 주거지원 사업' 선정

주택 10호 2년간 임대 지원

광주시와 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가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실시한 '2014년 미혼한부모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LH공사의 매입임대주택 10호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과 사업비 1억여원을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는다.

이번 사업은 여성가족부가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사업' 임대주택 중 일부를 별도 물량으로 확보해 미혼한부모와

그 가족이 주거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립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수행능력, 임대주택 물량의 적절성, 사업운영계획 등을 평가해 전국 6개 기관을 선정했다.

이번 입주 대상은 자립의지가 있는 미혼 한부모가구이며 임대기간은 2년(1차 연장가능)이며, 1가구당 임대보증금 700~800만원과 입주 지원비 100만원이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입주자는 관리비와 각종 공공금만 부담하면 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U대회 IT 공모전...논문·앱개발 2개 부문

9월15~30일 홈페이지 접수

입상시 SKC&C 입사 가산점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는 공식후원사인 SK C&C의 후원을 받아 '유니버시아드 IT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광주U대회와 관련해 IT 활용방안을 담은 '논문' 부문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활용 가능한 '앱 개발' 부문으로 진행된다.

논문 부문은 광주U대회에서 IT를 활용하여 홍보, 마케팅, 입장권판매, 인력관리, 예산절감 등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다룰 수 있다.

앱 개발 부문에서는 응용어플, 이벤트어플, 게임어플, 대화정보 및 관광정보제공어플 등이 해당된다.

공모전에는 개인 또는 4명 이내의 팀 단위로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응모작은 9월 15일부터 30일까지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심사는 활용도와 창의성을 중점으로 1,

2차에 걸쳐 진행된다. 앱 개발 부문에서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투표도 실시할 예정이다.

입상작은 부문별 4편씩 총 8편의 작품을 선정해 총 2500만원의 상금을 시상하게 되며, 수상자가 후원사인 SK C&C에 신입사원 공채 지원사는 서류전형 가산점 부여라는 특전도 제공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홈페이지(www.it2015u.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땅끝 해남이 주는 행복한 여행

캠핑의 시작, 땅끝 해남!

산과 바다 그리고 육지가 내어준 **자연의 선물 땅끝!** 이곳에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힐링하세요



송호리 오토캠핑장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갈산길 25-14
<http://autocamp.haenam.go.kr>



가학산 자연휴양림
전라남도 해남군 개곡면 산골길 306
<http://gahak.haenam.go.kr>



황토나라 테마촌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땅끝해안로 1730
<http://hwangto.haenam.go.kr>

여느 땅과 같지만, 그곳에서 있는 것만으로도 의미있는 곳

해남군
Haenam-gun